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총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성동 1-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성동 1-1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대성동 1-1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환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홍

감사합니다! 예수님!



다음 주일(7월 6일) 맥추감사주일 및 제5차 성찬식 (1~5부예배 시)

다음 주일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둔다(창 23:16)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애굽에서 중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그 속박에서 구원받아 농사지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하는 날이 맥추절입니다. (산 16:12) 무엇보다도 이 날에 임하신 성령님으로 인해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결국 맥추절(오순절)에 임하신 성령님의 역사로 오늘날 우리도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듣게 된 것입니다.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맥추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이유는 만사형통에 있지 않습니다. 단순히 지난 6개월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 온 것이 감사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도구로 세워주시기를 감사해야 합니다. (엡 1:13) 매순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고 있는 우리들을 놓지 않고 이끌어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이 유일한 감사의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골 1:20) 따라서 맥추감사주일과 아울러 행해져 제5차 성찬식은 맥추감사절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주님(히 13:20)께 물심양면으로 최선의 감사를 드리는 맥추감사주일이 되길 원합니다.

7월 교회 일정

6일(주)	맥추감사주일, 제5차 성찬식(1~5부예배 시)
9일(수)	정기당회(수요 2부예배 후)
16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 1부예배 후, 여전도회)
19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14:00, 남전도회)

마가복음 강해②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5:21~34)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거러사안을 고치신 후에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막 5:21) 그곳에서 예수님은 회당장 아이로의 간증을 듣고 그의 집으로 향했다. 회당장 아이로의 집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통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치유를 받은 것이다. 그녀는 부자였다. 그래서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지만 소용이 없었다.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허비하였을 뿐이었다. (막 5:25~26) 그녀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다. 그녀에게 남아있던 소망은 오직 하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께 병든 몸을 맡기고 나아갔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때문에 접근이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거어서 겨우 예수님 바로 뒤까지 올 수 있었다.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나는 그가 옷에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막 5:27~28) 이때 기적이 일어났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르며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막 5:29)

혈루증은 나병 다음으로 부정한 질병이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한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레 15:25~26)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율법도 혈루증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였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부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어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레 15:31) 피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율법은 엄한 규정을 적용시켰다.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해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레 18:19) 선민들에게 '부정함'이라는 것은 매우 두려운 것이었다. 따라서 혈루증에 걸린 여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가진 재산도 거의 없었으며 고단한 삶으로 인해 소망이 전혀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신앙적, 경제적, 육체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남아 있는 것은 두려움뿐이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

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다. 자신이 무언가를 해서 생기는 믿음이 아니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예수님뿐이었다.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이다. 예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외치셨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막 5:30) 이 말씀에 제자들은 "우리가 어찌하 마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막 5:31)라고 대답하였다.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이 여자를 보려고 돌리보셨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 보시니" (막 5:32)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이름도 모르는 여인을 예수님이 찾으셨던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

예수님의 찾으심에 이 여인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예수님께 고백하였다. (막 5:33) 예수님은 그녀를 향해 말씀하셨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막 5:34)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온 혈루증 걸린 여인은 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다. 이 모든 기적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신다. 혈루증 걸린 여인이 치유되는 기사를 기록한 본문의 앞뒤에는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이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은 거친 광풍이 부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다. (막 4:39~40) 거러사 광인도 고치셨다. (막 5:13~15) 또한 예수님은 회당장 아이로의 죽은 딸도 살리셨다. (막 5:41~42)

예수님은 분명 능력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여자에게 있었던 것은 믿음뿐이었다.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믿음이었다. (막 5:36) 이 믿음이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의 근원을 마르게 하였다. 영혼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였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보려고 둘러보고 계신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세상의 것을 붙들고 시간과 힘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의 옷을 붙들자. "성령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함이다! 무슨 일을 하든도 예수 의지함이다!" (찬 543장) 아멘.

* 매주 월요일매기도회(새벽 4:45)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LORD'S SUPPER & REVIVAL

⁽²³⁾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²⁴⁾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³¹⁾But if we judged ourselves rightly, we would not be judged. ⁽³²⁾But when we are judged, we are disciplined by the Lord so that we will not be condemned along with the world.

(1 Corinthians 11:23-32)

How fitting to view the Lord's Supper and revival together! Actually, every time we take Communion it should bring about a revival within us, calling us back to our first love. For it is a special time of new dedication, refreshing our thoughts concerning our relationship with Jesus Christ. Let's review our expressions of the Lord's Supper.

The Lord's Supper is a time for looking backward. Paul reminds us, "For I received from the Lord that which I also delivered to you, that the Lord Jesus in the night in which He was betrayed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said, 'This is My body, which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In the same way He took the cup also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vv. 23-25) The body and blood of Jesus reflect His death, so we need to look back at the cross in order to remember our Lord's sacrifice. The message of the cross is personal and powerful. 1 Corinthians 1:18 says, "For the word of the cross is foolishness to those who are perishing, but to us who are being saved it is the power of God." Jesus died for our sins. Is His cross foolish or precious to you? What does His death really mean to you? His last words before death were "It is finished." (Jn. 19:30) The price for our redemption from sin was paid in full by our Lord's death on the cross. His death made eternal life available for all who believe in Him.

The Lord's Supper is a time for looking inward. Paul says, "Therefore whoever eats the bread or drinks the cup of the Lord in an unworthy manner, shall be guilty of the body and the blood of the Lord. But a man must examine himself, and in so doing he is to eat of the bread and drink of the cup. For he who eats and drinks, eats and drinks judgment to himself if he does not judge the body rightly. For this reason many among you are weak and sick, and a number sleep. But if we judged ourselves

rightly, we would not be judged. But when we are judged, we are disciplined by the Lord so that we will not be condemned along with the world." (vv. 27-32) The Corinthian church was taking the Lord's Supper lightly, not sincerely, and as a consequence some of its member were sick or had died. At this Holy Communion service we have to search our hearts truthfully, so that we can avoid chastening. When you search your heart you discover the problems or barriers, and then you confess that to the Lord so that it can be knocked down.

The Lord's Supper is a time for looking outward, "For as often as you eat this bread and drink the cup, you proclaim the Lord's death until He comes." (v. 26) Proclaiming Jesus is what the Christian life is all about. The call to sinners is to see the gospel in the symbols of Christ's death. After Jesus took the cross, His disciples went out on His command to preach the good news to others,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has come upon you; and you shall be My witnesses both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even to the remotest part of the earth." (Acts 1:8) Evangelism followed the cross, so that now every Communion should send us out to reach the lost.

The Lord's Supper is a time for looking upward until Jesus' coming. He promises us a great reunion in heaven, "But I say to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Mt. 26:29) Do you believe it? Are you excited about it? We have such a beautiful hope until His return. The very best of futures awaits all who place their faith in Jesus.

My dear friends, if you can remember the cross of Christ, recognize your sin, share the gospel, and wait for Christ's return with great expectation, then you have fellowship in the family of God. Is not that exciting? Does not that qualify as a true revival? How will this Communion change your life today? 

주의 만찬과 부흥

(23)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24)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31)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32)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1:23~32)



김성관 목사

주의 만찬과 부흥을 같은 맥락에서 살펴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첫사랑이 회복되는 부흥이 일어나야 합니다.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함으로써 새로운 헌신을 다짐하는 특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다 함께 주의 만찬에 대해 되짚어봅시다.

주의 만찬은 뒤를 돌아보는 시간

주의 만찬은 뒤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23~25절) 예수님의 몸과 피는 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기 위해 십자가를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강력합니다. 고린도전서 1:18은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는 미련한 것입니까? 아니면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어떤 의미입니까? 숨을 거두시기 전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은 “다 이루었다”였습니다.(요 19:30)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완전히 치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는 완전한 희생이었습니다.

주의 만찬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

주의 만찬은 자신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렸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27~32

절) 고린도교회는 주의 만찬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 결과 그들 중 몇 사람은 병 들었고 심지어 죽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우리도 진심으로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징계를 피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살필 때 문제점이나 결점들을 발견하게 되면 주님께 그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은 즉시 그것을 처리해 주실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주위를 살펴보는 시간

주의 만찬은 주위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26절)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임을 깨닫도록 죄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 제자들은 주님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갔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행 1:8) 십자가에는 복음전도가 뒤따릅니다. 그러므로 매 성만찬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린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주의 만찬은 위를 바라보는 시간

주의 만찬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위를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입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마 26:29) 여러분은 그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가슴이 뛰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처럼 아름다운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최상의 미래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으며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학수고대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속임에 틀림없습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진정한 부흥이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성만찬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

2008년 제2차 청지기운전을 통한 은혜

두 세계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요한복음 18:36)

◆ 십자가의 은혜로 열린 하늘 길

이 땅을 살면서 또 다른 한 세계를 소망하고 있는 나로서는 청지기운전을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예배가 시작되고 말씀이 선포되면서부터 뭔가 답을 얻기 위한 학생처럼 귀를 기울이고 있었는데 저 하늘과 구분된 이 땅의 삶에 대한 해답이 아닌 연결된 이 땅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우리들이 비록 사다다리의 가장 밑바닥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사다다리의 꼭대기와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자." 라는 말씀이 있었다. 사다다리의 이 끝과 저 끝이 연결되어 있음을 생각해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았다. 그러면서 답을 구하는 자의 모습에서 자연히 그 말씀에 이끌려 가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어졌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늘 길이 열리며 또한 여호와와 눈길과 마음이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시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천국시민권을 가진 자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감사하게 되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천국을 맛볼 수 있고, 그분의 통치를 느낄 때도 있으면서 뭔가 나뉠 듯한 두 세계가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연결되는 한 세계인 것이었다. 하늘을 통치하시고 우주만물을 통치하시며 인생을 통치하시는 주님 사이에서 내가 그자놓은 열은 경계선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도 그러하셨듯이 여전히 지금도 나뉘지 않아 통치하시고 이 땅에 가시며 감사와 경배를 드린다. 현실이라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현실이라는 또 하나의 그 땅의 삶을 혼자자 아닌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믿는다. 또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기를 소망한다.

정인욱(인문수사, 3교구)

◆ 회개와 믿음으로!

작년 3월 28일 나는 11년 만에 두 번째 신장암 수술을 받았다. 두 번째 암 선고를 받고 '이제는 틀렸구나.' 라는 절망감도 들었지만 만나는 고우들에게 기도를 요청했고 위암목사님께도 매달렸다. 다행히 수술은 하나 남은 신장의 일부를 도려내는 것으로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방사선 치료나 수술과 같은 후유증도 남기지 않았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 속과 회복의 기적이 온전주님과 부활절과 겹친 것이었다. 수술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고, 회복의 기쁨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 더불어 위암목사님과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도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감사가 있었다.

그런데 1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재의 내 신장을 점검해 볼 때 안정이 필요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교회봉사를 등한시 하면서 어느새 주님과 멀어진 내 마음을 발견하고 잠깐잠깐 놀랄 때가 많다. "이래서는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나태해진 생활로 인해 마음을 잡기가 어렵던 중은 교회가 기도로 준비하며 기다려왔던 제2차 청지기 훈련이 다가왔다. 집회 시작 한 시간 전부터 이미 삼삼오오 흘러들기 시작한 성도들이 본당 1·2층을 꼭 채웠고, 이따금씩 전도사도 걸릴수록, 배대니도 꽉 찼다고 한다. 화중들이 뿜어내는 열기 속에 청지기훈련은 시작되었고, 연합찬양대가 부르는 찬양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구원받은 백성들의 찬양처럼 은혜로웠다.

위암목사님께서 '두 세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이 세상(인간세계)과 저 세상(천국)을 설명하시면서 회개의 눈물과 믿음만이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강조하셨다. 믿는 자 중에도 이 땅에서 강건하고 돈 잘 벌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땅에 속한 형제를 입조각 하는 자가 너무나 많았다 안타까워하셨다. 현대인들이 자신의 자존심과 명예가 훼손되는 것을 못 견뎌하는 것은 땅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와 눈물을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이것이 기독교 비밀이므로 십자가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다. 설교가 이어지는 동안 나는 불과 1년 남짓한 기간에 나를 살펴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당하고 이 땅에서 건 강하고 자녀들이 잘되는 것을 소원했던 땅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는 생각에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었다. 모든 믿음이 나를 한하여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되어 회개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오늘 밤 이 자리에서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다더냐 하늘에서는 천국잔치가 열릴 것이다."라는 마지막 설교말씀을 새기며 부족한 내가 회개와 눈물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소망해 본다.

박복숙(원사, 12교구)

◆ 내 영혼 안의 두 세계

지난 6월 20일은 매우 힘든 하루였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촬영장소를 뛰어다니고 밤새도록 대본 쓰느라 등근대근 준비했던 중국과 미얀마 돌기 모금방송이 방영되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모금방송을 여러 번 했지만 이번은 좀 특별했다. 우리나라 돈 10원이면 미얀마에서는 10리터 즉, 1.5리터 패트병 6~7개 정도의 물을 구입할 수 있다. 그런데 그 10원이 없어 아이들이 오면 물과 콜라를 먹을 거라고 속이 간다. 그래서 '방송 내내 성금이 많이 들어와야 할 텐데.....' 라는 조바심 때문에 초조해 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일은 내가 알고 있는 한 형제의 간이식 수술이었다. 그는 6년 전 간경증 판정을 받았다.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에서선 빨리 이식수술을 받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했다. 병원에서 이식에 대해 서두르자 다급해진 아내는 남편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간의 일부분을 떼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이날 새벽부터 12시간 이상 걸리는 대수술에 이 부부가 들어간 채 있는 상태였다. 내가 청지기훈련을 받고 있던 그 시간에 수술을 마친 형제는 무균실에서, 그의 아내는 중환자실에서 그리고 미얀마에 있는 오열된 물과 썩은 쌀을 먹는 어린이들이 죽을 고통과 사투를 벌이고 있었다. 그때를 잘 묘사하고 있다 날 청지기훈련의 주제가 '두 세계'였다.

하루 종일 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고 마음을 힘들게 했던 '죽음'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었다. 죽음....., 죽음은 참 묘한 힘이 있다. 한방이라도 죽음과 대면한 경험에 있는 사람들은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들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간다. 그래서 영혼을 위한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도 여유를 부린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내가 품고 있는 태신자가 있지만 학생이기 때문에 그는 여유를 부린다. 나도 마찬가지이다. 적어도 그가 나보다 예리고 더 오래 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은 지금은 믿지 않지만 '언젠가는 믿게 되겠지!' 라는 여유를 갖게 만들고 전도에 게으름을 피우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천국이 가까워짐을 다시 확인하게 되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게 되니까 이렇게 여유를 부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든다. 한 영혼을 집중적으로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전도를 해야겠다. 빠른 시간 안에 나의 태신자에게 전화를 해야겠다.

김정민(집사, 18교구)

◆ 회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

조금 일찍 집에서 나와 교회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성도들이 자리를 배우고 있었다. 자리에 앉자 청지기훈련 책자를 한 장씩 넘기다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이 노래한다.'라는 붉은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죄인인 내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마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하고 찬양해주는 것일다는 것이었다. 진실로 죄로 가득한 나에게 은혜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

사람은 날 때부터 죄악 된 본성을 지니고 있기에 죄를 짓게 되는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은혜를 구하고 죄 사함을 받으려는 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흔히 내 잘못이나 허물을 감추기에만 급급하고 또 내 잘못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외로운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 그러다가 누군가 내 잘못을 지적하면 오히려 화를 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서 내 발 아래 두려고 하는 참으로 괴수 중에 괴수였던 것이다. 죄인인 나는 항상 악할 뿐이며 내 마음의 생각이나 모든 계획도 악할 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한다. 그러나 주님은 이로써 허물과 죄뿐인 나를 어둠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주셨고 또 그 믿음이 회개로 이어지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회개하라고 명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나는 오늘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는다. 나를 죄와 사망의 그늘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며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 것이다. "죄인 괴수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 결과 진리 되시니 우리의 생명 되시네." 나의 생명 되시네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헌정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린다.

김미애(집사, 8교구)



◆ 진짜 두 세계가 있어!

나는 '이변에는 무슨 말씀을 주실까?' 하는 설렘을 안고 교회로 향했습니다. 마침 예배실에 들어오기 전에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마음으로 지리에 앉았습니다. '두 세계'라는 제목부터가 무엇을 말씀하실지 궁금했습니다. 사실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전부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중요한 세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인구를 사귀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인기를 얻을까'를 생각해하면서도 나에게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은 교회신생님으로부터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천지기후련을 통해 들은 말씀으로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조차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을 슬퍼하시며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제 친구들에게도 말하겠습니다. "예수야, 우리에게는 진짜 두 세계가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지옥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 우리가 회개할 때 너무나 기뻐하시고 잔치를 열어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은혜(중동1부)

◆ 천국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

'또, 때가 됐구나!' 라고 나는 생각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의 말씀을 고백하기 보다는 귀찮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나 주님은 '두 세계'라는 말씀으로 내려주시는 은총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이번 '두 세계'가 나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 중에 깨달은 은총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한 뒤 천지기후련에 입했다. 위임목사님을 통해 하늘의 비밀이 전해졌다. 위임목사님은 우리들이 하늘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전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을 얻으시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들으며 나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회개하였다. 나는 천도를 할 때에도 "선교를 가야 한다.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니 당연히 순종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만 전했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온전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때 '이것이 바로 죄인 한사람이 회개하는 것이구나.'라는 깨달음이 왔다. 진정으로 주님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했다. 이번 천지기후련을 통해서 이 세상과 천국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이 세상과 천국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았다.

오명선(집사, 10교구)

◆ 주님, 이제는!

천지기후련을 앞둔 주중에 정말로 나의 삶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십일조를 드리고 공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일을 열심히 하며 직장에 다니고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서 하나님 앞에 당당했습니다. 하지만 달달 날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저로 하여금 더 세밀하게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하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내면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세상의 것에 더 열심을 다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본 것입니다. 가진 재물이 자유롭다고 말은 했었지만 누구를 구제하는 일이 생길 때에는 여전히 실패 손이 나가지 않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사실 매일의 삶은 남들과 다를 바 없이 세상 일에 전념하며 정신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직장의 이직을 고민할 때도 하나님의 소명에 대한 의심보다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는 등 솔직하게 스스로 저의 인생은 부끄러운 모습뿐이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신앙이 낫다고 은근히 자랑스라워했던 것이 큰 교만이었으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도 없음을 다시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그동안 얼마나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저를 빠져 계셨던 예수님. 그럼에도 제가 주님께로 얼굴을 향하기만을 변함없이 기다려 주시는 예인이었습니다. 역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이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 영원히 거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이 세상은 정말로 잠시 지옥에 시간일 뿐입니다. 주님! 이제는 위의 것만을 찾으려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정재석(집사, 청년2부)

◆ 죄인이 회개할 때에 크게 기뻐한다

저는 교회에 올 때면 가끔 다른 세계에 들어가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비록 제가 그리스도인으로 교회에 다니고 있지만 살지는 않지만 한 주 동안 제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나 추구하는 것들이 세상에서 살기에 필요한 것들로부터 가득 차 있는 것을 자주 발견하곤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생각해 볼 때 나의 삶이 하나님 나라보다 현실의 문제에 주로 매달려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내가 갈 길이 멀지 않구나 하는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자주 세상이 많이 빠져 사는 저이지만 하나님께선 천지기후련을 통하여 저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지기후련은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상만을 아는 빌라도 총독 앞에서 인류의 죄를 위해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님이 예수님의 나라가 이 세계가 아니라는 말씀으로 말씀의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신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그리고 우리의 변화된 하늘에서의 신분, 죄인이 회개하였을 때 천사들의 기쁨,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없어졌다는 진리의 말씀이 감당에서 선포되었을 때 새롭게 깨닫게 되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과 처지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주님이 우리를 정말 깊이 사랑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다시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은 영혼에 대한 주님의 심판을 그리고 그 주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천사들은 정확히 알고 있어서 "죄인이 회개할 때에 크게 기뻐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선 위임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흐트러져 있는 나의 모습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있는가?"라며 도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회개시키고 생명의 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복음전파에 소홀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천지기후련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말씀을 은혜를 받아서 좋았고 주일날 보는 반가운 얼굴들을 또 보게 되어서도 좋았습니다. 또한 설교 사이사이에 주님께 찬양을 열심히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들과 아름다운 찬양들을 들으면서 주님께서 또 많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일평생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성령충만한 자로 살아가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백성들과 주님이 허락하신 천국에 들어갈 때 창조주께 새 노래로 영원한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석연(집사, 23교구)

◆ 십자가를 통해 연결된 하늘보좌

얼마 전 기독교박사님께서 오셨을 때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해물의 누룩을 주의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말씀을 하실때 나의 모습을 돌아보았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나에게 늘 오래 참으시며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느낄 수 있었다. 목사님께서서는 제2차 천지기후련 때에는 명명한 두 세계가 있음을 말씀하여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사모했다.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아픔에게 "꿈에 본즉 사다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영호와 깨서 그 위에 서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창 28:12~13) 이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사다다리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보좌와 연결되어 있음을 깨달았다.

설교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모두 내 심장을 뚫어 할 만큼 가슴이 벅찼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이 노래하는데 "회개야말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이다."라는 내용이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요 10:28) 나는 진실을 기뻐했다. "예수님의 마음을 허락하시어 영혼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이 크고 놀라운 비밀을 어리석은 저에게 듣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관심사에서 벗어나 오직 매순간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옵소서.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서 나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런.

최정숙(집사, 19교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중등3부



양기수(장로, 중등3부장)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잠 22:6) 중등3부는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있는 학생들이 있는 곳으로, 이성에 대한 관심과 자의의식이 높은 학생들, 모든 일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는 학생들,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을 구속이나 간섭으로 생각하며 반항적인 경향을 보이는 학생들 등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힘입지 아니하면 말려진 사명을 감당하기 힘든 곳이다. 하지만 인생에서 무엇이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세상의 학문을 배우기 전 창조주이시며 인간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전하는 38명의 교사가 예수님을 첫째로 두며,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사인하며, 전하는 중언이 되도록 기도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잠 1:7)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올바르게 착하게 성장하기를 소망하시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시지만 일부 부모님들께서는 중3이라는 이유로 “시절기간이 어서요, 시절 끝나면 보낼게요. 학원에서 특별과외가 있어서 다음 주일에 보내도록 할

게요, 특목고를 목표로 학원에 다니고 있어요. 내년에 고등학생이 되면 보내도록 할게요.”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이 자녀들의 마음과 영혼에 얼마나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롬 12:2) 매주일 아침 일찍 나와 기도하며, 찬양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학생들과 찬양대에서 봉사하는 친구들을 보면 참으로 귀하다. 그렇지만 부모님과 함께 일찍 교회에 왔지만 마음과 생각이 다른 곳에 두고, 습관을 따라 교회에 오는 친구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때마다 선생님들은 “바탕만 밝는 자가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드리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오늘날 만나게 해 주세요요.”라고 기도한다.

인터넷시대로 개인주의가 광배해져 자신만을 생각하며, 조금도 손해 보지 않으려는 학생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천국일꾼을 키우라는 사명을 받은 우리지만 우리 자신들의 무지와 무능현황을 고백할 뿐이다. “주님! 이 세대에 저희에게 맡겨주신 일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장으로 저들을 사관하게 해 주세요. 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교사가 되게 해 주세요요.”라고 오늘도 중등3부의 모든 선생님들은 십자가를 붙들고 기도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 23:28)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의 사람들(갈 3:27)

지난 주(22일) 창씨개배 시에 제3차 학습 및 세례식이 있었다.

두 세계를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걸음을 내딛는 세례자들의 걸음에는 천국의 기쁨이 가득했다. 세상의 옷을 벗고 보혈의 은총으로 가득한 새 옷을 입은 성도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소리를 들어 보자.



세례자

● 예수님은 제가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절대적인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수치를 불로도 모자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서진숙)

● 힘을 때나 기를 때 예수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김성욱)

●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두려움과 염려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께 저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김보배)

● 성령님이 저의 마음속에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제가 매일매일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임정란)

●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모든 것이며, 내가 의지하고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이루며 살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손영숙)

● 예수님은 바로 나의 주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게 하신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요.” (이상규)

● 믿음의 삶을 위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오로지 믿음과 기도로 무장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김은영)

● 예수님은 저의 안식처가 되십니다. 그 곳에서 저의 죄를 뉘우칠 때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용서하여 주셨으니 저도 이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귀경)

● 나의 몸과 마음의 영원한 안식처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맑은 영혼을 갖게 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선영)

● 이제 늘 깨어서 말씀과 기도로 살고자 합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하여 이 세상이 주는 시험과 환난 속에서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곽은정)

● 예수님께서 나의 인생 모든 것에 모범이 되어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삶과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민석)

●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내 삶을 주장하시며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이민지)

● 예수님은 귀하신 분이십니다. 지금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것입니다. (김정술)

●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난 삶을 살겠습니다. (이연숙)

●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이제 나의 영혼도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함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김연진)

●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은 내 인생의 동반자이자 나침반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은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임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하겠습니다. (이동은)

● 제 마음속의 중심이 예수님이 되어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께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신혜선)

● 비록 예수님을 만나고 생활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모르고 산 날보다도 더욱 마음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이 그려집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도 두렵지 않습니다. (구미나)

● 예수님은 우리 죄를 씻어 주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크신 능력으로 새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평생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송정숙)

● 믿음 없이 방황하는 삶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거룩하심을 가슴 속 깊이 믿어 생각합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며 십자가 보혈의 사역이 되기를 원합니다. (김태선)

● 예수님은 나의 모든 삶을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고 행할 것이며 항상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윤석철)

개종자

● 예수님은 나의 주이시며 영원한 생명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의 삶에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김보림)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어 믿음으로 복 된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인을 십자가 보혈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니 감사합니다.

민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어려운 언어로 전파한 말씀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 들은 자들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어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영혼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자들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게 하고,

자들의 일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들도 받은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통하여 주님의 임재하심과 예수님을 전하며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신니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의 삶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모든 영광을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 드립니다.

(이해경(권사, 5교구 2지역팀))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3개 팀)

기 간	팀	팀 장
7월 1일(화)~7월 8일(화)	11교구 4지역	조영철
7월 1일(화)~7월 8일(화)	16교구 5지역	양승찬
7월 3일(목)~7월 11일(금)	14교구 1지역	이희우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5개 팀)

기 간	팀	팀 장
6월 23일(월)~7월 1일(화)	9교구 1지역	박준근
6월 24일(화)~7월 2일(수)	14교구 6지역	류기명
6월 26일(목)~7월 4일(금)	6교구 2지역	정경욱
6월 26일(목)~7월 4일(금)	24교구 7지역	박인호
6월 27일(금)~7월 4일(금)	17교구 6지역	메정호

상식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가족 및 주위 분들의 권유와 하나님의 뜻에 이끌리
어 출현교회에 발을 디딘지 6개월 남짓한 시간, '침지기'
란 단어도 익숙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자리라는 믿음으로 침지기훈련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
체에 대한 교리 등, 뜻은 이해되었지만 마음과 여 담지 않
는 주님의 말씀이 저의 부족한 믿을 때문인지, 주님의 은
혜가 부족해서인지 고심하던 때였고 이런 말씀들이 저의 삶은 상식이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던 때였습니다.

위임목사님의 복음에 대한 설교가 감동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
는 시각이 바뀐 것만으로도 충분한 은혜입니다. 그러나 부지불식 중 저의 믿음은 경로를 이탈하
여 저를 혼란스럽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찾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절대적인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로 6개월 동안의 새가족양육부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서
서히 들어주셨고 이와 때를 같이 한 것이 침지기훈련이었습니다. 침지기훈련 예배시간 전부터
도착한 많은 성도들의 수에 놀라웠고, 강기도 불편할 정도로 연세 드신 분들이 어렵게 참여하신
것을 보고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이분들처럼 내가 이 시간에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
을 깊이 깨달아야 하는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와 찬양이 계속되는 동안, 평소보다 더 많은 은혜를 느꼈습니다. 침지기훈련이
 끝나고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책자에 적힌 말씀을 읽어보고 목사님의 말씀을 상기해 보면서 저
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감동하는 은혜가 되었습니다. 되돌아 보건대, 하나님께서는 항상
저를 가깝고 쉬운 길로 가게 하지 않으시고 멀고 어려운 길로 돌아가게 하시어 많은 것을 깨닫
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하는 일에 '검게, 빠르게'란 단어를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듯이 '주님에 대한 믿음도 같은 방법으로 주시고 계시는구나!'라고 깨달았습
니다. 항상 제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지금도 주님의 뜻에 따라 길을 걷고 있습
니다. 제가 중간 중간 주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도 그것은 진실로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들
기 위한 하나님의 과잉된 사랑과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염유옥(성도, 새가족양육부)

십자가의 길

맥추감사절(1)

유대인들은 매년 세 차례에 걸쳐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라는 명
령을 따라 절기를 지켰다. 그 첫째는 유월절로, 이스라엘 민족이 애
굽의 노예생활에서 해방된 것을 기념하여 지킨 절기였다. 두 번째 절
기는 오순절, 또는 칠절절이라고도 하는 맥추절로, 유월절이 지난 7
주 후 50일 만에 첫 밭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다. 세 번째 절
기는 수확절로, 밭 낸 동안 농사지은 것을 창고에 넣고 가들의
밭에 초막을 짓고 칠주일동안 생활하며 절기를 지켰다. 이 절기는
신약의 예로써 성직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
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기념한다. 맥추감사절은 교회
의 식물을 기념하고, 수확절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천국의 삶이 열
리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 그 중 다음 주일에 직접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살펴보자.

맥추감사절은 곡물을 수확해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추수감사절의
하나로 밭과 보리 추수 직후에 거행되는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절기인
칠절절, 즉 오순절과 관련을 갖는 날이다. 오순절은 본격적인 추수를
시작하기 전 곡식의 첫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유월절 후 첫
안식절 그 다음 날인 초실절 끝날 후 50일째 되는 날이다. 유대의
종교력으로 이 날은 7주 전에 시작한 곡물 추수를 무사히 마치게 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시는 절기로 엄숙한 가운데 하루 동안만 행해졌
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오순절은 성령강림의 의미로 교회에서 더 크
게 기념한다. 오순절은 120명에게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며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날이다. 아울러 오순절
성령강림은 초대 교회가 탄생하는 시점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맥추감사절은 우리 '교회의 탄생일'이다. 참으로 중요한 날
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진리로 모르고 오늘날 도시 교회에서는 '농
사도 짓지 않는데 무슨 맥추감사절이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
다. 그러나 도시 교회나 농촌 교회를 막론하고 맥추절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가 탄생하여 우리가 십자
가 공동체가 되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도록 복 주신 은혜의 날
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맥추감사절에 대해서 잘가르본다. 성령
을 끝무 해독하고 있다는 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억지를 부린다는
니..... 불필요한 논쟁에 신장을 쓰지 말고, 끝을 그대로 전하는
대로 순종하자. 세상과 선인 인간의 편애에 따르지 말고 맥추절에 알
려졌는 본래의 의미만을 집중하자. 이런 귀한 의미를 생각할 때 어찌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지 않을 수 있던 몸인가! 그 날을 위해 무
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편진국)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414	한정국	16	소양부	이상범(1)	1434	이재철	15	장년1부	박이순(15)
1415	송정호	9	교동부	전하예(8)	1435	김현정	1	교역자	
1416	백희주	23	장년2부	구영숙(3)	1436	이민서	1	장년2부	
1417	성병두	21	장년2부	주용준(21)	1437	김민	1	유년부	
1418	이민서	19	중동1부	조아라(11)	1438	김희희	4	대학부	이대경(8)
1419	문주은	8	장년부	박소진(11)	1439	박소진	12	소양부	이영환(12)
1420	김태하	8	장년부	박소진(11)	1440	윤소희	10	소양부	이영환(12)
1421	정영진	6	장년1부	김영숙(2)	1441	김영숙	18	장년2부	김성환(18)
1422	박정자	12	장년부	이희진(2)	1442	이희진	21	중동3부	최현진(2)
1423	김영진	4	교동부	김다영(8)	1443	최현진	21	대학부	김현진(2)
1424	양영진	11	장년부	김희정(15)	1444	박성준	17	이유숙(12)	
1425	최희혜	16	장년1부	지미자(16)	1445	김영호	16	대학부	박은지(7)
1426	최희준	22	대학부	이소은(22)	1446	남지우	3	장년2부	박진(16)
1427	최희준	4	중동부	박은혜(4)	1447	정성태	6	장년1부	신영희(6)
1428	신민선	16	초동부	김보라(16)	1448	최현부	1	중동1부	강 국(1)
1429	양영진	23	장년1부	김영희(7)	1449	홍준성	12	대학부	추수민(18)
1430	유민지	12	장년부	정숙희(12)	1450	이영희	24	장년1부	안은숙(24)
1431	양영진	12	중부	정숙희(12)	1451	성병모	23	장년1부	이도희(23)
1432	이영호	7	초동부	황태준(7)	1452	박진지	21	대학부	박정희(19)
1433	김영호	15	장년1부	박이순(15)	1453	김진자	7	장년2부	김영희(7)

* 중헌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35세까지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1. 남녀 전도회 전체 월례회
일시: 29일(오늘) 15:10 장소: 제1교육관 407호

결론

1. 황태준 군(황성태 씨·양선화 씨의 아들과 김운정 양(김용화 집사·전혜숙 집사의 딸, 15교구)/7월 5일(토) 14:00, 노블레스 웨딩컨벤션 4층 아도니스홀

별 세

1. 양태혁 성도(전부자 집사의 남편, 7교구 송파구역)
24일 별세, 26일 장례

충현복지관 직원 모집

1. 모집 부문 ① 사무국장(1958년 이후 출생자)
재미교인으로서 사회복지자 1급 자격을 소지하고,
장래의 복지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② 기획홍보팀 홍보담당
재미교인으로서 사회복지자 자격증 소지자
포토 및 편집이 가능한 자
2. 재 출 시 유 의 사항(이전후보, 유전등록등, 당회록 추천서)교인
자기소개서 작성, 사본, 졸업증서, 성적증명서
3. 재 출 마 령 ① 사무국장 : 7월 12일(화) 17:00까지
② 기획홍보팀 홍보담당 : 7월 29(수) 17:00까지
4. 서류제출지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90(내 401)

충현기도원 촉탁직원 모집

1. 모집 부문 식당 주방에서 일하실 분(세례교인으로서 여성분)
2. 제출 서류 자필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당회장 추천서(타교인)
3. 서류제출처 강남구 역삼동 665-1 사무국 ☎031-766-5425

- | | | |
|---|---|---|
| ◆권사회 전담연습
권사회 : 29일(월) 15:00
장소 : 갈매리울 | ◆6지구 영성소집
일시 : 7월 29일(목) 10:00
장소 : 순천기도원 | ◆영성실 카데라 봉사자 모집
자극 : 본교회 세례인도회
책임 및 있게 사람
한글 분 (초보자 환영
문의 : 영성실 # 224) |
| ◆2008년도 하반기 장학금 신청 | | |
| 1. 선발대상
① 본 교회 학생으로 2009년 6월 30일 이전 등록자
② 본 교회에 교회교육 재직 중인 고, 중, 대생생 (선사대학형 학생
2. 신청기간 2월 22일(수) ~ 7월 6일(수) 오전 10:30까지(3주만)
3. 신청방법 교회교육과 4층 401호로 접수
4. 문의 및 신청서류 교로문 ☎ 02-552-8208(후 472, 473) | | |
| | | 3. 선발시점 7월 18일(금) 13:00 |

2. 기증장소 : 특이부 교사(살선교관 1층) 3. 기증물품 : 가정 내 보관 중인 어린이용 성경그림책 및 동화책

1. 봉사시간 : 매주 수요일부예배 19:30~20:30 2. 문의 및 신청 : 에버다부실 제2교육관 1층, # 416)

7월 주일 및 수요일예배 기도 담당

월	일	주일예배 (장로)					친양예배 (만수집사)	수요예배 (권사)	
		I	II	III	IV	V		I	II
7	6	김영달	김승곤	노광현	김창국	양기수	임재봉	임명희	김영은
	13	이형수	전학래	김단용	이창호	신선길	윤해근	조인숙	문경숙
	20	전홍렬	김종구	최운덕	한승수	김진근	송한현	김경희	지아연
	27	오순도	박덕양	이종식	신상진	조종환	허만진	이연희	김영숙

새벽기도회 (6/30~7/6)

	6/30 (월)	7/1 (화)	7/2 (수)	7/3 (목)	7/4 (금)	7/5 (토)	7/6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박상대	양태성/한현석	유현철/최용길	유재진/최우근	강명구/김종규	김완수/김정운	이성진/강우린
설교본문	막 6:1-6	렘 38:14-28	렘 39:1-10	렘 39:11-18	렘 40:1-6	렘 40:7-12	렘 40:13-16

예배 담당 (7/2~7/6)

날짜	예배	설교	사회	찬양
7/2	수요 I	슬픈 소식 (마 7:21-23) 김성관 목사	양재윤	백애순
7/2	수요 II	벗은 밭, 벗은 밭 (사 20:1-6) 윤희란 목사	김영준	온유한 주님의 음성 (호산나 찬양대)
7/4	금요일	김성관 목사	윤숙상	간절한 벗이 보이시나 (실로암 찬양대)
7/4	금요일	김성관 목사	박정원	예루살렘 찬양대 / 첼로 이화영 / 가브리엘 혼성중창단
7/6	주일 I	주의 만찬과 부흥 (고전 11:23-32) 김완수 목사	최성태	김영달
7/6	주일 II	주의 만찬과 부흥 (고전 11:23-32) 김익환 목사	김성균	[예배 전 집합] 우리 주 십자가 의 / 소프라노 김희숙/임바누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노영민 오나와 주님께 피로니나 / 트럼펫 조영환/합창팀/아르카스트라 김준희 우리 주 십자가 의 / 해니 김현우/임바누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정진호 찬양대의 벗이 보이시나 / 만도린 연주대 / 24교구
7/6	주일 III	주의 만찬과 부흥 (고전 11:23-32) 김성관 목사	김진교	
7/6	주일 IV	주의 만찬과 부흥 (고전 11:23-32) 안치원 목사	김준희	
7/6	주일 V	주의 만찬과 부흥 (고전 11:23-32) 하종철 목사	정성진	
7/6	주일 VI	주의 만찬과 부흥 (고전 11:23-32) 하종철 목사	유재진	
7/6	주일 VII	보배로운 것을 (벧후 1:1-4) 김성관 목사	이재훈	이재훈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예배	I	오전 7:00
	II	오전 9:00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전야예배		오후 5:00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금요일찬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간	장 소
영 아 부	1 오전 9:00 오후 11:00	제1교육관 110호
유 아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 처 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17호
유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 등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407호
소 년 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507호
중 등 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 등 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 등 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 등 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 학 부	(토) 오후 2:00	제2교육관 4층
청년 1부	(토) 오후 5:30	제2교육관 4층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최요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본당 앞 출발
금요철야	자녁 11:00	금요일장집회 후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부 예배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수화교인,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4부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몽골어, 한국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통역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Worship Service.

분	시간	장 소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5층
1부	오후 12:30	제2교육관 2층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8호
4부	오후 1:30	배다니 홀
장부	오후 12:15	강원리 홀
장부	오전 11:00	복리관 지하1층
다부	오전 9:00(학생) 오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다부	(주) 2시간 50분 600 (고) 700, 저녁 930	실교관 1층
양육부	오후 12:15	배다니 홀
인원지	주요관 107호	제1교육관 107호
인원교육	주요관 107호	충원초지관
인원교육	주요관 107호	인민관

- ◆음영실 카메라 봉사자 모집
- 자각: 본교회 세례교인으로
책임감 있게 사명 감
하실 분 (초보자 환영)
문의: 음영실# 224)
- 전 등록자
학원·신학대학원 학생
미·교회 각 부서에 한신직으로 봉사하는
3주전) 3. 선발시험 7월 18일(금) 1300

- 관 중인 어린이용 성경그림책 및 동화책

- 신청 : 예비다부실제2교육관 1층, # 416)

6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교회의 방패와 삼광(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마 18:36)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시므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위원회와 신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빌 2:5)으로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는 가는 선교가,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간 전도(매월 둘째 주,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둔다 보혜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며 예배시절 찬양대를 통하여 교묘찬양집회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⑦ 출현의 제단(유지·헌재·복지)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되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남급시설 건립과 수양관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 ⑧ 피택받은 일꾼들이 모든 교육(4, 6~10, 4)을 통하여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십자가의 정병이 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섬 · 기 · 는 · 분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 [illegible]